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 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2022년중 울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의 특징

(자세한 내용은 "붙임" 참조)

문의처: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조사역 김수명 (052) 259-7421
팩스 (052) 259-7491, 이메일 ulsaneco@bok.or.kr

"한국은행 울산본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(<http://www.bok.or.kr/ulsan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한국은행 울산본부

(붙임)

2022년중 울산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의 특징

2022. 12

한국은행 울산본부

<작성자> : 기획조사팀 김수명 조사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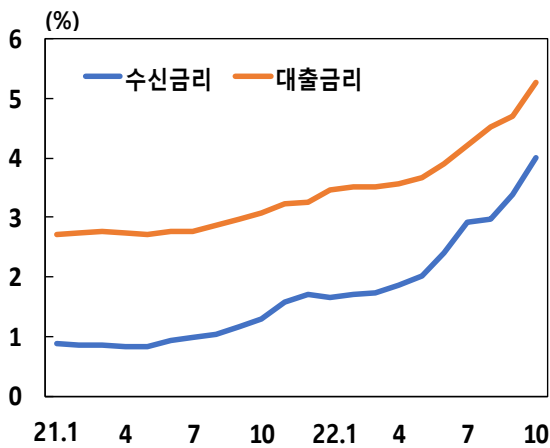
【 차례 】

I. 개 황	1
II. 주요 특징	2
1. 은행 정기예금 큰 폭 증가	2
2.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증가	3
3. 가계대출 감소 전환	4
4. 중소기업대출 증가세 지속	5
III. 평가 및 시사점	6

I. 개 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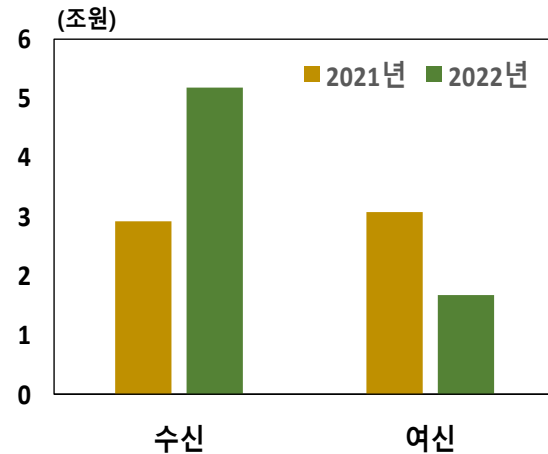
- 2022년중 글로벌 공급망 차질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심화되면서 올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큰 폭 상승(1.00% → 3.25%)
 - 이에 따라 금융기관 여수신금리도 상승세를 지속하여 예금은행 대출금리(신규취급액 기준)가 2021.1월 2.72%에서 2022.10월 5.26%로 상승하면서 10년만에 5%를 상회
- 작년까지 이어지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금융기관 수신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여신은 증가율이 둔화
 - 특히 예금은행 정기예금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

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¹⁾



주: 1) 신규취급액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울산지역 여수신 증가 규모¹⁾



주: 1)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II. 주요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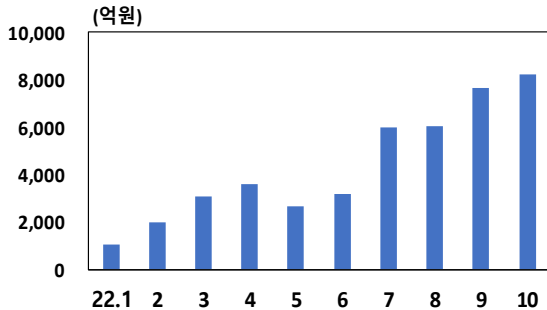
1 은행 정기예금 큰 폭 증가

□ 울산지역 은행의 정기예금은 2022년 1~10월중 4.3조원 증가하면서 금융기관 전체 수신 증가액(5.2조원)의 대부분(84%)을 차지

○ 최근 정기예금 증가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갱신하면서 전년말 대비 잔액이 69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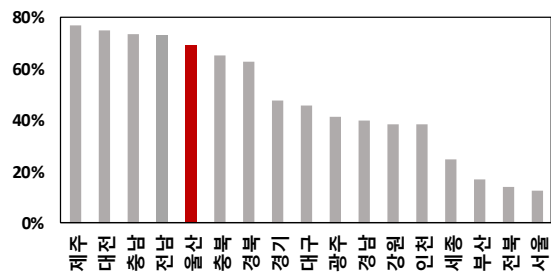
— 이는 전국에서 제주, 대전, 충남, 전남에 이어 5번째로 높은 증가율

울산지역 월별 정기예금 증가 규모



자료: 한국은행

시도별 정기예금 증가율¹⁾



주: 1) 전년 말잔 대비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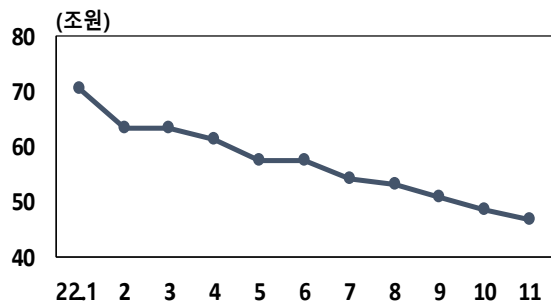
○ 요구불예금, 저축예금, 투자자 예탁금 등에서 대규모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이동하였으며, 이외에도 기업대출 증가분, 정부 지출금, 여유 현금 중 일부가 유입

울산지역 예금은행 예금 종류별 잔액

	(조원)		
	21.12월	22.10월	증감액
요구불예금	4.4	4.0	-0.5
저축예금	5.5	4.7	-0.8
정기예금	6.3	10.6	+4.3

자료: 한국은행

주식 투자자 예탁금¹⁾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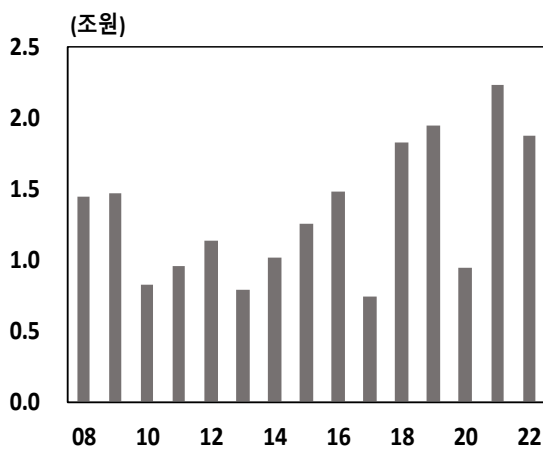
주: 1) 전국 기준
자료: 금융투자협회

2

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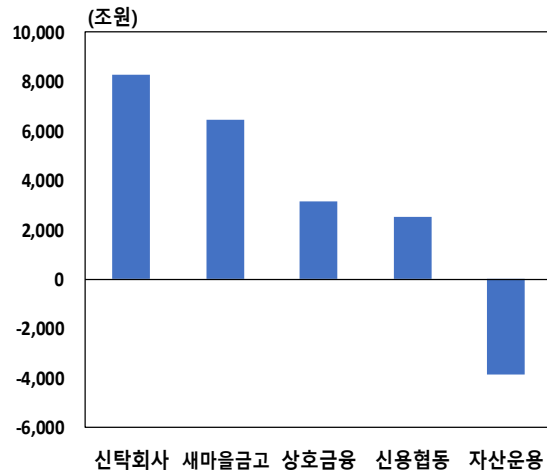
- 울산지역 비은행 수신은 신탁회사, 새마을금고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1~10월중 증가폭이 1.9조원으로 전년동기(1.5조원) 대비 확대
 - 신탁회사(+8,287억원)는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 단기자금 운용 수요 확대로 특정금전신탁* 예치액이 크게 증가
 - * 고객 요청에 따라 주로 단기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(MMT 등)
 - 머니마켓펀드(MMF, 단기자산운용펀드)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단기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수신액은 감소(-3,849억원)
 - 새마을금고(+6,438억원), 상호금융조합(+3,169억원), 신용협동조합(+2,549억원) 등도 금리상승에 따른 정기예금 수요로 수신액이 증가

울산지역 비은행 수신 증감액¹⁾



주: 1) 2022년은 1월~10월중
자료: 한국은행

울산지역 비은행 기관별 수신 증감액¹⁾



주: 1) 2022년 1~10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3

가계대출 감소 전환

□ 대출규제 강화 및 여신금리 상승으로 울산지역 가계대출이 2019년 이후 3년만에 감소로 전환

○ 올해 10월 기준 잔액이 22.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7,922억원 감소하였으며, 과거 가계대출 감소 사례(2019년중 1,468억원)와 비교해도 감소 규모가 매우 컸음

—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가계대출은 DSR 규제* 강화, 금리 상승으로 올해 1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하여 1~10월중 8,230억원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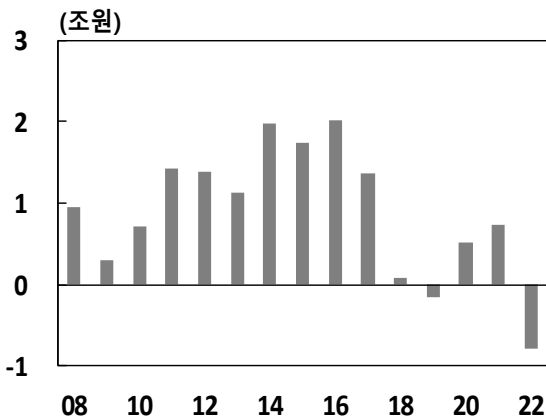
* 작년 10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차주단위 DSR 규제 2·3단계가 올해 1월과 7월에 조기 시행되었으며, 비은행권 평균 DSR 기준도 강화

—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분양 및 입주 확대*에 따른 집단대출로 소폭 증가(+307억원)하였으나 증가폭은 전년동기(+4,893억원) 대비 크게 축소

* 울산 주택건설 준공(호): '21년 2,841 → '22년 상반기 2,267 → '22년 7~10월 2,0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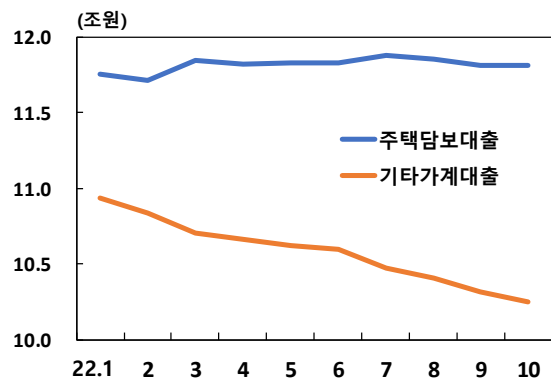
○ 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올해 1~10월중 5,377억원 감소하였으며, 비은행 금융기관은 2,546억원 감소

울산지역 가계대출 증감액¹⁾



주: 1) 2022년은 1월~10월중
자료: 한국은행

울산지역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가계대출 잔액



자료: 한국은행

4

중소기업대출 증가세 지속

□ 중소기업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정책자금 지원, 운전자금 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

○ 1월~10월중 증가 규모는 2.1조원으로 전년동기(2.4조원)와 유사한 수준

— 다만 증가율(+9.4%)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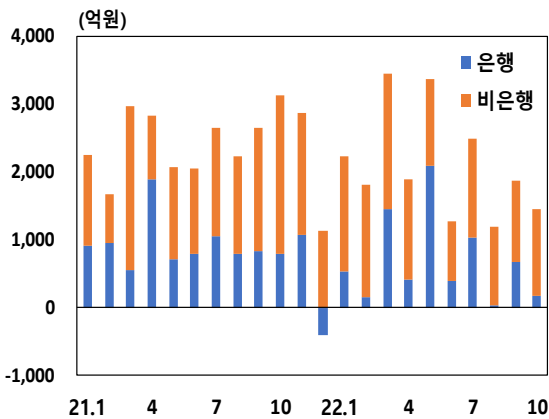
— 업종별로는 건설업(+20.1%)·전문서비스업(+20.1%)·여가서비스업(+18.4%) 등 비제조업이 제조업(+4.7%)에 비해 빠르게 증가

— 잔액 기준으로는 부동산(14%)과 도소매업(12%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

○ 한편 DSR 강화에 따른 가계대출 한도 축소, 기업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비은행 비중*이 지속적으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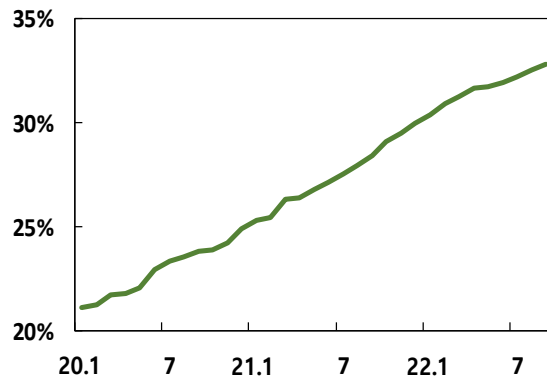
* 2020년말 25% → 2021년말 30% → 2022년 10월 33%

울산지역 중소기업대출 월별 증감액



자료: 한국은행

울산지역 중소기업대출 중 비은행 비중



자료: 한국은행

Ⅲ. 평가 및 시사점

□ 금년중 여수신금리가 상승하면서 1~10월중 정기예금이 급증한 반면 가계 대출은 감소 전환

○ 금리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라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

□ 한편 울산지역 가계대출의 안정성은 아직 양호한 편

○ 코로나 이후 예금은행 연체율*이 하락한 가운데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, 울산지역 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낮은 수준**

* 예금은행 연체율(%) : '20년말 0.17 → '21년말 0.16 → '22년 10월 0.13

** 개인소득(2020년 기준, 통계청) 대비 가계부채는 80%로 전국(111%)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

□ 기업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경기둔화, 대출심사 강화* 등으로 기업 자금조달 사정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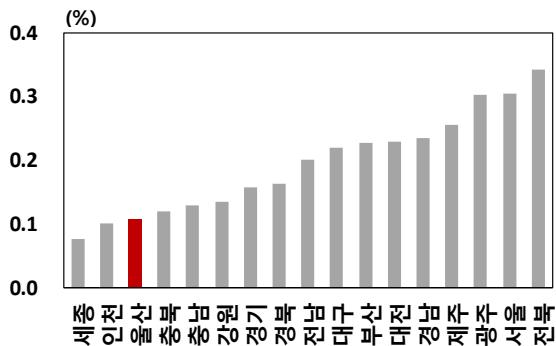
* 3분기 대출행태 서베이(한국은행)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행태지수는 2분기에 완화적이었으나 3분기 대출태도 및 4분기 전망은 강화

○ 울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자금사정BSI가 최근 크게 하락

○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기업대출은 아직 낮은 연체율을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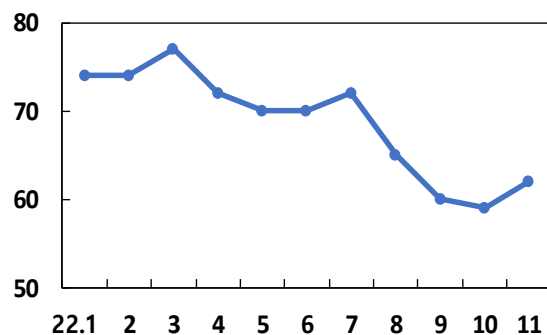
— 정책자금 지원 종료시 한계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일부 대출 연장 및 구조조정 대책을 준비할 필요

시도별 예금은행 평균 연체율¹⁾



주: 1) 2022년 1월~10월중 평균
자료: 한국은행

울산지역 자금사정 BSI¹⁾



주: 1) 제조업 기준
자료: 한국은행